

지역 소식통

김제시 부량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방문 전달

김제시 부량면 (면장 임영하) 맞춤형복지팀은 27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청접수, 지원금(김제시립상품권)을 전달했다.

부량면 한시생활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1세대 127명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수의 거동불편한 어르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찾아가는 복지팀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맞춤형복지팀은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상품권 현금화 금지, 7월 까지 적극사용 등 주의사항과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 사용하시라고 당부말씀드렸다.

임영하 부량면장은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뿐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서로 보완하여 위축된 마음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마음건강 꾸러미 제작·어르신들께 전달

완주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챙기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곳의 수행기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만 지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마음건강 꾸러미는 어르신들의 인지 활동을 돕도록 자체제작한 교재, 퍼즐 등으로 구성됐다. 집에서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대체활동 도구다.

색칠공부와 퍼즐 등을 하면서 무료함을 달고 즐거움과 성취감까지 더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는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연휴기간 산불예방 총력

김제시,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임산물 불법채취 병행 단속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객이 많은 것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는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해 7개소 42명으로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선발하여 주·야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와 임도 주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35명을 배치해 입산객의 화기 소지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금년도 불철 김제시에서는 한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입산자의 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간오지 등에 5대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와 8개소의 산불감시초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발생 건에 대한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으며, 산불 기동단속을 시행하여 계도

가 아닌 엄정한 단속으로 범질서 확립 및 불법 소각 근절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찰 및 신도를 대상으로 산불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연등행사 참여자에게 촛불 및 화기물류급에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며,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 내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이 많이 나는 주요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임산물 무단채취자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방지해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위치안내가 쉽지 않은 관내 강변과 저수지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56개를 신규 설치 할 예정이다.

응급시 국가지점번호로 신고

김제시, 응급상황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김제시가 위치안내가 쉽지 않은 관내 강변과 저수지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56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이란 전 국토를 100km부터 10m 단위까지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체계 시설물로, 주소가 없는 산악이나 해양 등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묘약산, 구성산, 원평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125개를 설치하였다.

김제시는 올해 관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저수지, 당월저수지, 동진강, 백산저수지, 선암저수지, 능계저수지에 국가지점번호판 56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관내 설치되어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를 4월 중 실시하여 훼손, 망실 여부 등을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설비 1,400만원을 제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였다.

윤재호 민원지적과장은 "시설물이 없으나 주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과 주요 산책길, 등산로 등 도로명이 없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 대폭 강화

정철우 부군수, 코로나19 대책 회의서 '생활속 거리두기' 강조

방역과 일상의 병행을 앞두고 완주군이 중대고비가 될 4월 말 연휴 기간 전에 유원지와 관광지 주변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27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사전준비, 해외입국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대책, 다중이용

시설 방역 점검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부군수는 "이번 주말 연휴가 방역과 일상의 병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며 "연휴 전에 식당과 카페, 민간 체육시설,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국이나 찌개는 덜어먹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주민

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이 제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이예절 등 위생적인 음식문화로는 ▲음식 먹기 전에 미리 손을 씻고 ▲테이블 앉을 때 1m 거리를 유지하며 마주보지 않고 엇갈려 앉을 것 ▲국이나 찌개는 개인접시 사용 ▲음식물을 머금고 대화하지 않기 ▲타인의 수저나 컵에 손대지 않기 등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1,600여 지역 내 음식점을 포함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안전관리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음식점 식이예절 홍보, 방역소독 점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5월1일부터 한달간

완주군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군청 1층 대회의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방

문·전자·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할 경우 전주세무서와 완주군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군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액납세자에 모뎀재출신고서

가 개별적으로 발송돼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완주군 신고센터에는 5월 18일부터 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단순경비율 대상자만 처리가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완주군 관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건수는 총 91,000여건으로 이 중 4,000여건이 방문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행복은 방울방울'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개학 연기 및 외부활동 제한으로 무료해진 아동의 정서적 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 아동 230명(153가구)을 대상으로 '행복은 방울방울'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분을 이용해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수확해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자연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가족 유대관계 강화의 계기 마련이 목적이다.

토마토 모종 화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상 아동 230명의 집으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아동 스스로 2~3개월 동안 토마토 재배과정을 관찰해보고 스마트폰 사진 전송 등을 이용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피드백을 실시하게 된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가정 내 활동이 길어진 시기에 실의 활동을 통해 답답해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가족 간 유대관계 또한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